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볼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눅 23:26).

: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빙정댑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우리는 이때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러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지불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눅 8:2-3}.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목적과 너무나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당장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될 결과들에 대해 주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불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눅 23:26)

1. 순종으로 인한 긴장관계

오늘 묵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삶에서 쉽게 부딪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의 문제가 '나'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향'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거두어야 할까요?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악간힘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웃을 것입니다. 당장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예수를 따라 가니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비난 가운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챔버스에게 있어 '순종의 길'에 타협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무척 어려운 긴장관계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 신앙에서 한 번은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2.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순종이 야기하는 긴장관계는 때로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잠시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막15:21)" 신약성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

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될 결과에 대해 주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은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 ❷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은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묵상 질문 혹시 당신은 ‘순종’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묵상레시피 | 빌레몬서 1장 + 누가복음 23:26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으로 빚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11, 18절)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일 하길 원했습니까? (12-13절)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일 하길 원했습니까? (14-17, 20-21절)

빌레몬이 이 일로 치러야 할 희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 각각 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짧은 기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만나 그냥 즐기고 왔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없어 모른 체하고, 복만 빌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줄 알지만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닌 줄은 알지만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아니, 실은 그것은 평계입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처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저를 좋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김영봉_용기를 주소서(목사,신학자,저술가) 「사귐의 기도」 326